



여성신문사/A5신
350면 내외/각 10,000원

‘여성’이란 것이 삶의 장

르라면 ‘이야기’는 여성언어의 장르다. 그만큼 이야기는 여성의 것이다. 하지만 입말로 떠도는 여성의 이야기와 글말로 불박인 남성의 이야기는 서로 어긋난다. 언제나 입말로 부유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침묵시켜온 말의 권력은 입말을 글말로 혹은 수다로 여기며 문서고에서 배제시켜 왔다. 그런 점에서 남자의 이야기와 여자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다. 두 이야기가 ‘다른’ 것이라면 그 둘은 다를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앞서, 미리, 있어야 한다. 들릴락 말랄한 미세한 소음으로 웅웅거리지만 언젠가 돌아오고야 마는 상처 속의 목소리인 여성의 이야기는 무엇이 아니다. 없는 것, 배제된 것, 하지만 기어코 돌아오고야 마는 목소리가 여성의 이야기다.

‘입말’로 기록한 자전적 이야기

《여성신문》에 연재됐던 글을 묶어낸 이 책은 그런 입말에 대한 기록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이 책은 구술사(oral history)로 쓴 여성사다. 하지만 이런 구술사와 여성사라는 이름새 사이에는 서글픈 이음쇠가 걸쳐져 삐걱삐걱 소리를 낸다. 그것은 이야기와 여성과 역사라는 세 낱말이 서로 다른 역사와 권력을 갖는 말로 겹쳐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의 이야기는 자전적이다. 특별히 여성의 이야기가 자전적일 이유는 없겠지만 여성의 이야기는 언제나 자전적 이야기로부터 매개되고 또 모든 이야기를 자전적 이야기로 매개한다. 하지만 그 자전적 이야기는 모두 순수한 자신의 성찰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자전과 다

르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것이다. 부득이 어떤 기록의 가치가 인증된 여성들을 선택했기에 그랬겠지만, 편자 스스로 변명하듯이, 이 책에 실린 목소리의 여성들은 비범한 여성들이다. 그녀들은 대개 신여성이었고, 몰락한 양반 귀족 출신이거나 새로 부상한 신흥 부르주아의 영양(令嬢)이었고, 숙녀였으며, 양처였다. 또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유학까지 다녀왔고 그 덕에 무엇보다 여성 1호라는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그 탓에 그녀들은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보다 남자의 목소리라는 거울에 비춘 목소리를 들려주는 듯하다. 자신의 생애 주기를 출생과 교육, 직업과 결혼으로 연대화하는 것은 남자의 인생-이야기(life story)이다. 이런 인생-이야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남성적인 이야기의 장르고, 이같은 자전의 장르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프로필 작성을 통해 청구되는 그런 자전 이야기와 달리 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어떤 무늬로부터도 이야기를 뽑아내는 직인들이고, 또 연대기로부터 해방된 채 스스로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달인들이다. 그리고 그런 뜻에서 특정한 언어적 문법 속에서만 자전을 이야기해야 하는, 자전 이야기보다는 어떤 조정된 자기 재현의 습관에 가까운 남성의 연대기와, 여성의 자전 이야기는 많이 다르다.

하지만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신을 ‘등록’시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분투해야 했던 이 책 속의

‘구술사’로 쓴 한국 여성의 역사

《이야기 여성사(1·2)》를 읽고

서동진 | 문화평론가

여성들은 삶의 어느 마디에서나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는 직인들이고, 일반적인 연대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호가 나 있다. 그동안 말의 권력은 여성의 이야기를 군말이나 수다로 여겨 역사의 문서고에서 배제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 입말로 떠도는 여성의 이야기가 글말로 불박인 남성의 이야기를 역사의 영토에서 축출하고 있다.

여성들은 그런 점에서 자꾸만 남성의 목소리를 매개한다. 아마 이것이 역사와 여성 사이에서 생겨나는 소음일 것이다. 남성적 장르의 이야기로부터 풀려난 여성의 이야기, 공식적인 자전의 연대기(출생-입학-졸업-학위-취직-수상-공식적 업적 등)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역정을 횡단하며 엮고 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여성의 이야기일 수 있다면 이 책의 이야기는 남성의 이야기에 겹쳐져 있다.

역사의 문서고로 진입하는 여성의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얼룩처럼 여성의 이야기를 찾아낸다. 공식적인 사회적 성취를 이룬 여성들이 아니라 다른 역정을 거친 여성들은 특히 그런 여성의 이야기에 민감하고 또 탁월하다. 알다시피 역사는 또한 이야기의 장르다. 역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규범이지만 또한 이야기 역시 역사를 만들어내는 장르다. 이런 뒤섞임 속에서 우리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제 노쇠한 역사의 이야기 혹은 남성의 이야기 속에서 이 책이 각별한 것도 그런 때문이다. 입말로 전승된 이야기들이 굳은 말로 씌어진 역사의 표면으로 침범하고 남성의 역사로 뒤덮인 이야기의 문서고에 여성의 이야기들이 뒤섞이는 것. 그것은 아마 우리의 언어 세계를 바꿀 것이다.●